

# 한전공대 설립 밀그림 윤곽 드러났다

### 중간 용역 보고서, 학부 400명·대학원 600명...소수 정예 대학 목표 총부지 120만㎡ 캠퍼스 40만㎡...“입지 광주·전남 합의 추천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대 과제인 한전 공과대학(케코텍·Kepco Tech) 설립 밀그림 윤곽이 드러났다.

10일 뉴시스가 입수한 한전공대 설립 용역사 'A.T.Kearney(AT커니)' 측이 작성한 '중간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작지만 강한' 소수 정예대학을 설립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오는 2040년까지 20년 내 국내 최고, 2050년까지 30년 내 세계 최고 공대 실현을 목표로 조성된다.

학교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수는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α(외국인 학생)로 설립된다.

이 같은 학생 규모는 국내 타 교

육기관 이해 관계자 의견과 학령인구 감소, 연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결과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10대 1'을 기본으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가능 유지를 위해 전체 교수 수는 100명 +α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들러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대(코리아텍) 대비 3배 이상의 연봉(4억원+α)을 보장하고 국내 대학 대비 2배 수준의 연구 시드머니(10억+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전공대는 파격적인 학업·진학 지원과 국내외 최우수 연구·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아 파트형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대의 외형적 규모는 미래상을 고려해 대학+클러스터+대형연

구시설이 공존' 하는 컨셉으로 구상됐다. 세부적으로는 캠퍼스 40만㎡,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연구시설 40만㎡ 등 총 120만㎡ 규모로 설계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대 설립 입지는 2022년 3월까지 조기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국·공유지'가 1순위로 꼽혔다.

에너지특화 클러스터 중심대학으로 '산학연 윈윈 플랫폼 구축과 확장'이 용이하고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과 접근성'도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지 선정 방안으로는 최단기간 내 입지 선정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 추천하는 안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다. 일정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획된 조기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전남 합의 추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차선책으로 '용역을 수행 중인 전문가'를 통한 입지 선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한전이 부지를 자체 선정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고 수용 불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용역 보고서에는 성공적인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범정부 지원조직 구축과 정부·지자체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도 담겨 있다.

'(가칭)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전이 최근 3분기 연속 영업 이익 적자 발생을 이유로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가예산사업(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활용과 특별법을 통한 재정지원 가능성 검토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정부 외에도 더 나아가 시·도차원의 재정적 지원체제 마련 등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10일 오전 목포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넌 존재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워”

### 전남도교육청, '자살예방의 날' 합동 캠페인 실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도내 21개 학교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은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한 날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생들의 생명사랑·존중 의식개선을 위해 이날 21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 경찰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살예방

구호를 외치고 프리허그를 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교사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웃음에서 학교의 희망찬 미래를 엿 볼 수 있었다.”며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8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 전남 장석웅 2위·광주 장휘국 12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민선 3기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2개월 연속 2위를 차지한 반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1위에서 12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한국행정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8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55.3%의 응답자로부터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55.9%)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장 교육감은 지난 7월 조사에서도 58.8%의 지지율로 전국 2위를 기록했었다. 장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얻은 지지율과 비교한 지역주민 지지 확대지수에서도 144.0점을 얻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후 탈 권위적 행보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반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7월 직무수행 지지도가 11위(41.1%)였으나, 8월은 12위(42.4%)로 한 단계 하락했다.

장 교육감의 지지도는 8월 전국 평균 긍정 평가를 44.8%보다 2.4%포인트 낮았다.

장 교육감의 8월 지역주민 지지 확대지수는 111.6으로 6위를 기록했다.

3선인 장 교육감은 민선 3기 시작 후 고교 시험지 유출, 여고 심비위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인호 기자



## 화순교육지원청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 교육”

### 교감 및 행정실장 60여명 대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은 7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6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세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청탁금지법 해설, 부정청탁 사례별 기준 구분 등 수준급지 위반사례 단담 등 청탁금지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연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연수에 참석한 화순초 허병수 교감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연수를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은 물론, ▲청렴연구동아리 ▲청렴생각 115 ▲청렴마인드 향상 청내방송 ▲청렴문화 알리미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광주·전남 3만8079명

광주·전남지역 201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수험생은 3만8079명으로 지난해보다 13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는 2만3500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119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218명 증가한 1만3624명, 졸업생은 109명 감소한 3322명, 검정고시 출신은 10명 증가한 404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1만487명(51.5%), 여자 9863명(48.5%)으로 남자가 624명 많았다.

영역별로 국어영역은 2만328명(99.9%)이 선택했고 수화영역은 가형이 6160명(30.3%), 나형이 1만3707명(67.7%)으로 나형 선택이 2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여학생의 가형 선택은 2180명(22.8%), 나형 선택은 7363명(77.2%)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화영역 미응시자는 420명(2.1%)이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영역은 2만261명(99.6%), 미응시자는 89명(0.4%)이다.

전남지역 응시자는 1만7729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75명 증가한 1만5648명, 졸업생은 45명 감소한 1827명, 검정고시 출신자는 19명 감소한 254명이다. 남자가 8781명(49.5%), 여자가 8948명(50.5%)이다.

국어영역은 1만7687명(99.8%), 수화영역은 1만7216명(97.1%), 영어영역은 1만7612명(99.3%), 탐구영역은 1만6788명(94.7%),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1634명(9.2%)이 선택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